



클래식 음악으로 그린 「영웅」

지난 몇 년 간 이른바 '영웅' 열풍이 불고 있다. 영웅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초인간적이며, 초역사적인 업적을 남긴다. 이러한 영웅을 드러내는 방식도 다양해서,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순신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고뇌하는 인간으로 그렸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나 영화 〈명량〉은 불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을 깨부수는 강력한 존재로 그렸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영웅을 탄생시킨다는 난세(亂世)가 지금이 아니냐며 그의 출현을 기대해보는가 하면, 자신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영웅이 아니냐라는 자문과 용기를 가져보기도 한다. 그래서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아왔다.

● 전장의 영웅부터 그의 애인까지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을 떠올려보면 모차르트(1756~1791)와 베토벤(1770~1827)처럼 남성들이 많다. 오늘날 음악 전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비하면 좀 놀랍다. 어쨌든 사내아이가 인형보다는 로봇과 전장놀이를 택하듯이 그들 역시도 남성적이며 '영웅'과 같은 소재를 택했다. 특히 가사가 없이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기악음악으로 영웅을 어떻게 묘사할까 싶지만, 실제로 몇 개의 곡을 들어보면 웅혼한 필치로 각자가 생각하던 영웅을 음표로 표현해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베토벤의 곡을 꼽을 수 있다. 애호가들끼리는 '베토벤의 황제'와 '베토벤의 영웅'이라 하면 각각 피아노 협주곡 5번과 교향곡 3번으로 통용된다. 1803~1804년에 작곡한 교향곡 3번 '영웅'은 프랑스의 나폴레옹(1769~1821)에게 헌정하려는 작품이다. 베토벤은 유럽 개혁의 주도자로서 그를 존경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자 베토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도 역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 이외의 모든 인간 위에 올라서서 독재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나폴레옹의 이름이 적혀있던 악보의 표지를 찢어서 내팽개친 것으로 전해진다.

베토벤은 총 9곡의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이 교향곡에는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어서인지 가장 웅혼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이처럼 '영웅'을 소재로 한 곡들은 그냥 감상하면 재미가 없다. 자신이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짓밟혔다고 치자. 복수를 해야 하는데(물론 상상 속에서), 그때 배경음악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쓰면 좋을 것이다. 피아노 협주곡이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협연) 하는 형식이다. 이 곡은 1809년에 작곡되었는데, 사실 '황제'라는 부제는 베토벤이 붙인 게 아니다. 황제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곡이 웅대하고 규모도 크며, 당당하고 화려하기에 후대가 붙인 이름이다. 특히 1악장이 앞에 말한 복수전의 배경음악으로 적절하다. 다소 전투적인 느낌도 드는데, 베토벤이 이 곡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나 그로 상징되는 적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투쟁을 음악적으로 상징화하며 전개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실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했던 시절, 베토벤은 프랑스군 장교와 마주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내가 작곡만큼 병법에 정통했다면 맥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도처에서 포탄이 터지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케스트라를 병사들로, 피아노를 그들을 이끄는 장군으로 상상하며 직장 상사인 적군에게 돌진해보자.

그런데 상사, 아니 적군은 역시 만만치 않다. 돌진하다가 (비록 상상속이라고 해도) 적이 쏜 포탄에 쓰러질 수 있는 법. 영웅이라고 힘들지 말라는 법이 있다. 그럴 때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들어야 한다.

'영웅의 생애'가 발표(1899년)되던 19세기에는 독일에 '영웅' 열풍이 음악계에 불던 때였다. 앞서 말한 베토벤이 영웅이 지닌 힘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면, 슈트라우스는 영웅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듯하다. '영웅의 생애'는 여섯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영웅, (2)영웅의 적, (3)영웅의 애인, (4)영웅의 싸움터, (5)영웅의 업적, (6)영웅의 은퇴와 완성이다. 컷가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려오는 부분은 '영웅의 애인' 대목이다. 애인이란 곧 슈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불능진해 不能盡解, 의난이극지 宜難以極之 (논형 論衡)

트라우스의 아내 파울리네를 상징하며, 두 대의 하프가 감미로운 선율을 자아낸다. 마치 상처 입은 영웅을 치료해주는 여인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영웅의 생애'는 슈트라우스 자신의 자아상을 강하게 반영하여 역경을 극복하며 궁극의 성취를 향해가는 한 영웅, 즉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을 그린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 영웅을 그린 음악은 지금도 탄생 중이다

그 밖에도 쇼팽(1810~1849)이 작곡한 피아노 독주곡인 폴로네이즈 6번에도 '영웅'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일설에 의하면 막 완성된 이 곡을 쇼팽이 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투구를 쓰고 전투복을 입은 고대 폴란드 전사들의 행렬이 전진해오는 환각에 빠져 공포에 질린 나머지 방에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1862~1918)도 영웅을 소재로 작곡을 했는데, 앞의 곡들과는 다른 조용한 곡이다. 이른바 '영웅의 자장가'. 1915년 말에 벨기에의 왕 알베르 1세와 그 병사들을 칭송하기 위하여 쓴 곡이다. 자장가라는 말에서 영웅이 갑자기 애기처럼 느껴진다. 사실 영웅의 서사에는 그를 보살피는 여인이 꼭 등장하여 영웅을 어르고 위로해준다. 이 곡은 그런 여인의 나지막한 손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밤의 어두운 기운이 담겨 있는 묘한 곡이다.

영웅을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시대나 환영받았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도 여러 영웅이 있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가 궁극하다면 국립오페라단이 마련한 창작오페라 '주몽'을 관람해도 좋을 것이다(6월 6~7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창작오페라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형식을 따르되 한국어와 한국적인 느낌이 강한 음악으로 된 장르를 일컫는다. 창작 오페라의 맛도 보고, 교과서와 역사서로만 만나던 영웅의 신화를 오페라의 음악으로 접하는 것도 영웅을 만나는 색다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전과 다른 환경을 만나더라도 습관에 따라 "하던 대로"를 외친다. "하던 대로"가 몇 차례가 막히면 그제야 서서히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사건 사고가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상과 수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부는 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완벽한 대책의 마련을 외치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왜 그럴까?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선을 긋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학계와 언론계에서 그 한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추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후한시대를 살았던 왕충의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 그는 가슴에 세상을 고칠 웅재대락을 품고 있었지만 한직을 떠돌았다. 그는 공직에 참여하여 큰 세상을 대면할 수 없자 당시에 있었던 모든 논의와 학술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허망한지 분석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답론을 저울질하여 값을 매기겠다는 '논형(論衡)'의 저술로 이어졌다.

왕충은 '논형'을 하는 작업 중에 공자(孔子)도 비껴갈 수 없었다. 춘추시대 공자는 세상을 구하자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며 '논어(論語)'를 남겼다. 한 제국에 이르러 공자와 '논어'는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왕충은 '논어'의 모든 말이 금과옥조와 같은 귀한 말이 아니라며 검증의 필요성을 외쳤다.

"바로 파악되지 않으면 마땅히 물어서 밝히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마땅히 따져서 끝까지 파헤쳐라!"(不能輒形, 宜問以發之. 不能盡解, 宜難以極之.)

언론은 시민을 대신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명확할 때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잘잘못이 가려지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서 문제가 쌓이고 쌓이는 '적폐'가 되지 않는다. 적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는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의 밑바닥까지 진실을 찾아낸다면 사건 사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